

전북교육청 “고교학점제 기반조성”

선도지구·교육소외지역 구분 일반고 총 96개교 대상 12억 추가 지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일반고의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을 위해 일반고 96개교를 대상으로 12억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주, 군산, 익산 지역을 선도지구로 정음,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지역을 교육소외지역으로 구분해 모든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 진로에 맞는 다양한 학습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단위학교의 교육역량을 강화한다.

고교학점제 시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과 맞춤형 교육 등 미래교육 구현을 위해 단위학교의 제약을 넘어서는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체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추가 지원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학생의 과목선택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미래교육 구현을 위해 단위학교의 제약을 넘어서는 교육활동 지원체제를 마련해 다양한 고교학점제 운영 모델을 개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가정에서 쉽게 교사와 학생이 실시간으로 쌍방향 교육을 할 수 있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3~5교)를 추가 지정하고, 온라인 학습기반 구축 시설(10개교)을 확대하며 학교 간 협력교육과정, 대학연계 프로그램 개발에 지원한다.

또한 도내 중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교과에 대한 정보 적성과 진로에 적합한 과목 선택을 위한 정보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북형 고교학점제 스마트폰 앱과 웹사이트를 개발해 제공하고, 예체능 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교육소

외 지역 학생들을 위한 예체능 전문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6개교를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내 일반고 46개교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기반조성을 위해 ▲교육과정 다양화 및 특성화를 위한 학교 역량 강화 ▲교육과정 이수 지도 ▲진로지도 역량 강화 ▲중학교 학생을 위한 고교학점제 홍보 및 확산 ▲온·오프라인 공동교육 생태계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한다.

또한 전주, 익산, 군산을 제외한 3개 시 8개군 내 일반고 50개교를 대상으로 ▲교육소외지역 교육여건 개선 사업 ▲교육소의 지역 내 교육협력센터 운영 ▲온·오프라인 공동교육 생태계 구축 ▲단위학교 교육과정 이수 지도 팀 구성 등 진로지도 역량 강화 ▲농산어촌 고교 교원의 교육과정 문해력 제고 ▲학생 과목선택권 확대를 위

한 다교과·다과목 지도 역량 강화 ▲전북형 고교학점제 모바일 APP 및 웹 사이트 개발 등을 추진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을 통해 일반고의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와 협력체제를 구축해 자유롭고 신나며 감동적인 일반고를 만들어 갈 것이다”며, “교육소외 지역에서는 소규모 학교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교원의 전문성 강화와 공동교육과정 확대를 통해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교학점제란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를 말한다. 2020년 마이스터고에 우선 도입된 뒤 2022년에는 특성학교·일반고 등에 부분 도입하고, 2025년에는 전체 고등학교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RLRC·사업단장 이종희 교수)가 18일 공과대학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전북대, 지역혁신 ‘닷’ 올린다

207억 규모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 현판식

전북대학교 나노탄소기반 에너지 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RLRC·사업단장 이종희 교수)가 18일 공과대학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 출범을 알렸다.

이 연구센터는 지역의 기초연구 역량 증진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호남·제주권에서 11개 사업이 치열한 경쟁을 펼쳐 전북대가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 사업을 위해 전북대는 과기정통부 및 지방정부로부터 7년 간 207억5천만 원을 지원받아 나노탄소 기반 에너지 소재 응용에 나선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동원 총장을 비롯해 이종희 연구센터장,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과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연구센터 시작을 축하했다. 이 사업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탄소융합기술원(KCTECH) 등이 공동연구 기관으로 참여하고, 전라북도와 전주시,

완주군(㈜휴비스, ㈜크리엔사이언스, ㈜그래핀), 완주(주)오성, (주)솔, (주)대경산전, 비케이시 등이 출연기관으로 함께한다.

이 같은 협력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신개념 나노탄소기반 에너지 소재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에너지 저장/변환 장치 응용기술 개발에 대한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해 전기자동차나 휴대폰, 전자제품, ESS 산업 등의 에너지 저장 장치로 널리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분야는 전북의 주력 산업인 탄소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혁신 연구로, 미래를 대비한 신소재 개발해 에너지 저장장치에 적용하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성과를 내고 있는 전북대가 지역 발전을 위한 좋은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전북의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사업 가속화 및 연구 확장을 통한 전라남도(수소에너지) 및 제주도(풍력에너지)를 포함하는 에너지 핵심권역 형성으로 광역권 내 에너지 산업 육성까지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은성 기자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사랑의 헌혈’

전북교육연구정보원(원장 김갑식)은 지난 18일 청사 주차장 한편에 마련된 헌혈버스에서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헌혈자가 급격히 줄어 수혈용 혈액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직원 대상 헌혈 희망조사 결과 많은 직원들의 요청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대비해 개인 마스크를 착용하고 문진 등 대기시간 동안 사회적 거

리두기를 통해 모두 안심하고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김갑식 원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헌혈 감소로 혈액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교육기관으로서 국가적 위기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모여 이번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우리 원 직원뿐 아니라 전북교육 가족 모두 적극적으로 헌혈에 참여해 헌혈 확산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교육연구정보원(원장 김갑식)은 지난 18일 청사 주차장 한편에 마련된 헌혈버스에서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가졌다

전북교육청, 온실가스 감축 의무이행 앞장

에너지 지킴이 협의회 개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절약 실천 습관 정착을 위해 에너지 지킴이 협의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에너지지킴이는 각 과별로 1인씩 지정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습관을 유도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사무실 내 에너지절약 실천사항을 안내하고, 효율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전기절약 실천사항으로 스탠바이 램프는 손쉽게 온·오프 할 수 있는 곳

에 설치 및 미사용 사무기기 전원 차단 △점심·야간시간에는 일괄 소등 하되 필요한 부분만 점등 △에너지소비를 1등급 제품·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 구매 △PC 대기전력 차단 S/W(그린터치) 설치 △엘리베이터의 이용보다는 계단의 생활화 등을 안내했다.

지정된 에너지지킴이들은 매일 에너지절약 점검일지를 통해 실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기전력만 차단해도 전력 사용량의 6%를 절감할 수 있고, 적정온도를 위해 1°C만 조정해도 약 7%의 전기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교육문화회관 인문학 강연... 4~7월 총 12회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는 4월부터 7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예술, 심리, 철학, 문학을 주제로 마음을 채우는 끌림의 인문학 강연을 진행한다. 6월의 주제는 철학으로 한국사마천하회의 김영수 이사장의 ‘마천, 인간의 길을 묻다’, 7월은 문학으로 나사렛대학교 문학치료학과 이봉희 명예교수의 ‘내 마음을 만지다’를 찾아가는 글쓰기문학치료를 운영할 예정이다.

4월 8일 오후 7시 융합기술연구소 크로싱 대표인 이은화 작가 강연을 시작

으로 7월까지 주제를 3회씩 명사 강연이 펼쳐진다. 5월의 주제는 심리로 하브루타부모교육 연구소 김금선 소장, 6월의 주제는 철학으로 한국사마천하회의 김영수 이사장의 ‘마천, 인간의 길을 묻다’, 7월은 문학으로 나사렛대학교 문학치료학과 이봉희 명예교수의 ‘내 마음을 만지다’를 찾아가는 글쓰기문학치료를 운영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예방수칙 준수하여

코로나19 우리함께 이겨냅시다!

사회적 거리두기
(모임 및 타인과의 만남자제)

외출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의료기관 방문 시 필수)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코로나19가 의심된다면 1339

장수군의회
http://council.jangsu.go.kr